

'비대면진료 불법' 초진 대상 등 찬반 첨예

소아 야간·공휴일 초진 두고 의약계는 "반대" 거동불편자 등 약 배달도 "추가 보완책 강구" 의협 등 "의정협의로 충분히 논의·합의하라"

비대면 진료가 불법으로 바뀌는 6월 1일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여전히 초진 허용 범위와 약 배달 허용 등 쟁점을 해소하지 못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에서 확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달 내에는 전문가 의견수렴 및 추가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상시 합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는 제도기간으로 정해 대

상 환자 범위와 초진 확대 여부, 수령 방식 등 제도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보완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는 1회 이상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초진도 허용하기로 했다. 진료 방식은 화상 통신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도 가능하다.

삼·백지 환자,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는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줬다.

당초 소아도 야간과 공휴일에 한해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당정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

소아는 성인에 비해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이야기하기 어려운 만큼 진료

의 안전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가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약사회 등 의약계는 지난 19일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되는는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나아가 도서벽지와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 초진 허용 대상자에 대해서도 "구체적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수령 방식에 대해서도 아직 약 배달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방안에 따르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해 수령해야 하며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의 약국 자동배정 방식은 금지된다. 본인 또는 가족 등의 대리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거동 불편자 및 감염병 확진자 등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에 약을 배달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추가로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결론을 유보했다.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을 주장해온 플랫폼 업계에서는 초진 대상자와 약 배달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원격의료산업협회(원산협)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동일한 약을 반복 처방받는 만성질환자조차 무조건 대면으로 수령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료접근성 증진이 목적인 비대면진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민간이 제공하던 비대면진료 서비스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쟁점이 뚜렷하지만 정부는 향후 열을 안에 결론을 내는 방침이다. 의료계와 산업계에서는 시범사업이 줄속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의협을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학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단체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시범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며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유유나기자**



진도소방, 119안전체험버스 이용한 소방안전교육 운영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119안전체험버스를 이용한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여수소방, 학교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실시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최근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한 소방안전교육을 여도초등학교에서 운영했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광양소방, 전남 최초 심폐소생술 교육 차량 제작·운영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최근 혁신실업(주)로부터 심폐소생술 교육 차량(5천만 원)을 기부받아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광양=김현근기자



화순소방, 화재취약지역 관계기관 합동 안전컨설팅 추진

화순소방서(서장 이중희)는 봄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화재취약지역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컨설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순천경찰,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 합동캠페인 실시

순천경찰서(서장 김중호)는 지난 16일 순천시 용당사거리에서 순천시청, 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 합동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순천=김승호기자



나주경찰, 자체 특별 사격 통한 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사격술 훈련 희망자 16명에 대해 '시민의 안전과 엄정한 법 집 집행'을 위한 사격술 향상 자체 특별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

"꽃 도둑은 도둑 아니라는 옛말"...호수공원 화초 싹쓸이 범인은?

나주혁신도시 빛가람호수공원 화초 계획적 절도 의심

'꽃 도둑은 도둑도 아니라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엄연한 범죄 행위로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된다.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된 전남 나주혁신도시 빛가람 호수공원에 갑자기 출몰한 꽃 도둑 때문에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당 공원에는 나주시가 4억5000여만 원을 들여 바깥길을 조성하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둘레 길을 따라 장미화단을 비롯해 가을까지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뽐낼 조화를 식재해 정성껏 가꾸고 관리해 왔다.

21일 나주혁신도시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사전 답사를 하고 온 듯한 40대 여성 5명이 나주시가 호수공원에 조성한 아름다운 화단을 돌며 각종 꽃 모종을 무단기로 절취해 갔다.

당일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은 주민자치카페에 사진과 함께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한 게시 글로 양심불량 여성들을 고발했다.

카페 자유게시판에 '호수공원 꽃 도둑'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을 읽어 보면 5명의 여성들은 계획적으로 꽃모종을 절취한 의심이 든다. 게시 글을 옮겨서 소개하면, "금

일(11일) 오후 5시께 호수공원 앞 축부쟁이꽃밭 앞에서 40대 여성 5명이 꽃밭까지 행거 와서 화단 꽃을 파서 쇼핑백에 담은 모습을 촬영했다"며 "가까이 다가다니 이들이 피해서 가는 뒷모습과 돌아보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는데 참 씁쓸하네요. 제자리에 다시 심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적었다.

실제 기자가 화단을 살펴보니 7월부터 꽃을 피워야 할 축부쟁이 화단은 절취의 흔적이 듄성들성 발견됐다. 꽃 도둑으로 지목된 이들 여성들은 CCTV관제센터 영상 분석 결

과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호수공원 곳곳에 조성된 화단의 꽃모종을 절취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꽃모종 절취 정도가 생각보다 심하고, 이러한 몰상식한 행위에 대해 경중을 울리는 차원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형법 제329조'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몰래 훔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아니라는 점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나주=송준표기자**



해운대모래축제 관람

'2023 해운대 모래축제가 열린 21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다양한 모래작품을 구경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22일 막을 내리지만 모래작품은 오는 6월 6일까지 전시된다.

순천 해룡면 공장 심야 화재, 4시간 걸려 진화



순천시 해룡면의 공장에서 불이 나 4시에 만에 진화됐다. 21일 순천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밤

소방 인력 43명·소방차 등 진화 장비 19대 투입

11시53분께 해룡면 신성리 지하 1층·지상 4층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인력 43명과 소방차 등 진화 장비 19대가 투입됐다.

순천소방서는 지하층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부분 통제단을 가동해 불을 꺾었다. 불은 21일 새벽 4시께 완전히 진압됐다. **순천=김승호기자**

공장의 TCM압축기 설비 가동 중 유압유 찌꺼기 등으로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공장관계자 등을 불러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 **뉴스**